

| | | | |
|---------------|---------|-------------|---------|
| ↓ 코스피 | 2468.83 | ↓ 코스닥 | 875.04 |
| | (-1.32) | | (-1.51) |
| ↓ 금리 (연고래 3년) | 2.21 | ↑ 환율 (원/달러) | 1077.20 |
| | (-0.01) | | (+2.00) |



65년 증오 지운 '세기의 악수'

▲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미정상회담 개최

북한과 미국 정상이 65년만에 비핵화 합의문에 서명했다.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미국은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키로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만나 역사적인 회담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두 정상은 이날 단독회담, 확대회담, 업무오찬 등을 하며 140분간 함께 했다.

〈관련기사 2·3·4·6·8·9·15면〉
김 위원장은 합의문에 사인한 뒤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이 만남에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역사적 서명을 하게 됐다"며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워싱턴을, 트럼프 대통령은 평양을 각각 방문해 양국간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백악관 초청을 수락했다"면서 "(나 역시) 적절한 시기에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도 중단키로 했다. 다만, 주한미군은 감축하지 않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北美만의 종전선언 의미없어... UN 등 조율 필요

한반도 종전선언 왜 빠졌나

남북미중 등과 함께 추진 가능성
트럼프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

12일 얼굴을 맞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형식상 없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순차적으로 비핵화 절차를 밟고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등 국제사회가 그에 상응하는 도움을 주는 것과 함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한 종전선언은 이후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함께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카펠라 호텔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별도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과 관련해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종전선언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한국전쟁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 등이 이런 관측을 가능하게 했다.

이 같은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도 ‘싱가포르 행 티켓’을 기다렸었다. 북미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고, 그곳에서 남한

<북미 정상회담까지 주요 일지>



까지 참여한 3국의 종전선언은 당초 우리 정부가 내심 구상했던 그림이었다. 분단을 상징하는 역사적인 장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곳에서 남한 정상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는 것이 국제 사회에 전하는 ‘평화 메시지’로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미회담 관련 문재인 입장문

“한반도 평화 위해 혼신의 힘 다하겠다”

역사적인 북미회담의 성공을 뜨거운 마음으로 축하하며 환영합니다.

5월 26일 통일각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만났을 때, 그리고 바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조심스레 회담의 성공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70년에 이르는 분단과 적대의 시간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실조차 믿기 어렵게 하는 짙은 그림자였습니다.

낯고 익숙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하게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두 지도자의 용기와 결단에 높은 찬사를 보냅니다.

6월 12일 센토사합의는 지구상의 마지막 냉전을 해체한 세계사적 사건으

로 기록될 것입니다.

미국과 남·북한이 함께 거둔 위대한 승리이고, 평화를 염원하는 세계인들의 진보입니다. 누구도 해내지 못한 위업을 마침내 이뤄낸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세계를 향해 과감하게 첫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순간의 주역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회담 성공을 위해 노력해 준 리선룡 총리와 국제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갈 것입니다.

전쟁과 갈등의 어두운 시간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역사를 써갈 것입

니다. 그 길에 북한과 동행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도 숱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 담대한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행동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합의가 온전히 이행되도록 미국과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와 아낌없이 협력할 것입니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고, 공존과 번영의 새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년 6월 12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F1 피트 빌딩에 설치된 인터내셔널미디어빌딩(IMC)에서 각국 취재진이 TV 모니터에 중계된 북미 정상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진 2500명 ‘역사적 순간’ 생중계

세계의 시선 쏠린 싱가포르

‘세기의 만남’이 성사된 싱가포르 센토사섬에 세계인의 시선이 쏠렸다. 도널드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상 첫 만남이 이뤄진 12일 10시(한국 시간)센토사섬 카펠라 호텔 주변에는 취재진들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로 붐볐다. 이에 앞서 양 정상은 묵고 있는 본섬의 상그릴라 호텔과 세인트리시스 호텔 인근에도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태운 자동차 행렬을 보기 위해서였다.

이날 오전 8시 13분과 30분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차례로 카펠라 호텔에 당도했을 때는 영어, 아랍어, 중국어, 일본어 등으로 여러나라 매체들이 역사적 순간을 생중계하며 취재열기를 자아냈다. 이번 회담을 위해 전세계에서 모여든 취재진 등 관계자들은 2500여명으로 전해진다. 카펠라호텔 입구에는 레드카펫이 깔렸고, 인공기와 성조기가 6개씩 연달아 총 12개가 게양됐다. 이 배치는 ‘6월 12일’을 상징하는 차원으로 알려졌다.

철통같은 경비로 싱가포르 거리는 다소 삼엄해졌지만, 현지인들은 평소처럼 일하며 생활하면서도 이번 회담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좋은 기회로 작용하기를 바랐다. 전날인 11일 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옴에궁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 겸 국방부 선임장관과 함께 마리나베

이센즈 지역을 둘러 산책한 소식이 알려지자, 이번 회담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룰 것이라 전망과 기대도 높아졌다.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은퇴자인 우(71)씨는 “싱가포르가 현재 집중적으로 전세계 미디어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에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며 “다만 이번 회담을 싱가포르가 치를 수 있게 돼 참 대단하고 멋지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에 관광객으로 온 호주인인 데니스씨는 “이번 정상회담이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이 될 듯하다. 북한과 미국에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며 그레야만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BBC는 싱가포르의 택시기사들과 인터뷰한 동영상물을 소개하며, 현지인들이 이번 회담에 갖는 생각들을 보도했다. 택시기사들은 “전쟁 대신 평화를 의제로 삼아 매우 기쁘다”, “이번 회담이 더 나은 상황을 만들것 같다. 싱가포르에게도 행운이다”, “이번 회담으로 북한 경제가 나아질 것이며, 이는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 북한에서 사업을 벌일 수도 있을 것”, “한국인들에게 좋은 일이 돼서 기쁘다” 등 이번 회담에 대해 낙관적으로 이야기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도 며칠 전부터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회담 당일 탄중파가(Tanjong Pagar)에 위치한 한인회관으로 모여 양 정상들의 만남을 TV로 시청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대등했던 북미

북한과 미국은 대등했다.

12일 북미정상회담 장소인 센토사섬의 카펠라 호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도착했다. 카펠라 호텔내 회담장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앞서 자리를 잡았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갖고 악수를 나누는 카펠라 호텔 입구에는 인공기와 성조기가 각각 6개씩 번갈아가면서 배치됐다.

이날 단독회담 등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누는 회담장에 들어간 취재진도 북한 7명, 미국 7명으로 같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현지 시간)께 숙소인 상그릴라 호텔을 나서 전용차량인 캐딜락을 이용해 카펠라 호텔로 향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10여 분 늦게 숙소인 세인트리시스 호텔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숙소

는 거리론 약 500m였다.

두 정상의 역사적 만남을 축하하기 위해 거리에는 수 많은 시민들이 나와 손을 흔드는 등 배웅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였다.

호텔 출발시간이 다소 빨랐던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보다 카펠라 호텔에 먼저 도착했다. 하지만 호텔내 회담 장소엔 김 위원장이 먼저 나타났다. 전용차량에서 내린 김 위원장은 통이 넓은 검은색 바지와 줄무늬가 없는 검은색 인민복 차림에 왼손엔 서류철과 오른손엔 안경을 들고 있었다. 얼굴은 무표정했다.

양 정상이 처음 만나기로 한 시간인 9시가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호텔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왔지만, 회담장에는 김 위원장이 먼저 도착해 기다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한 붉은색 넥타이와 흰색 와이셔츠에 정장 차림이었다. 역



12일 오전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태운 차량(위)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 차량이 싱가포르 세인트 리시스 호텔을 나서 카펠라 호텔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 표정은 없었다.

두 정상의 첫 악수는 예정시간인 9시를 조금 넘겼다.

악수를 나누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뒤로는 성조기, 인공기, 성조기, 인공기 등 각각 6개씩의 국기를 번갈아 배치한 모습이 눈에 띄었다. /김승호 기자

美, 비핵화 가속페달 밟을 듯... 실무협상 곧 착수

‘CVID’ 빠진 공동성명서에 사인 대신 ‘완전한 비핵화’ 단어 사용
美, 비핵화 관련 ‘다소 양보’ 분석
CVID 상응조치 지속적 요구할 듯

‘비핵화는 있었지만 CVID는 없었다.’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이같은 골자가 담긴 공동성명에 함께 사인을 했다. 비핵화 문제는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였다. 그만큼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과 미국이 가장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한 것도 바로 비핵화 문제였다. 특히 미국은 비핵화와 관련해선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즉 ‘완전하고 검증가

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주장해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회담 하루 전인 지난 11일에도 “북한이 CVID에 착수한다면 이전과는 다르게 전례 없는(different and unique) 안전보장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CVID를 약속해야 체제를 보장하겠다고 공언할 만큼 미국이 생각하는 북한의 비핵화는 곧 CVID였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CVID가 우리가(북한으로부터) 수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결과”라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한지를 보고 싶어한다”고도 말했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각각 주도하는 양국 실무진이 정상회담 하루 전날 밤 늦게까지 6시간 가까이 마라톤 실무협상을 벌인

것도 ‘CVID’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회담 뒤 두 정상이 각각 사인한 공동성명에는 CVID가 없었다. 대신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실제 이날 공동성명을 보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는 구절이 세 번째 조항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비핵화와 관련해선 미국이 북한에게 다소 양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AFP 통신은 이번 성명에 대해 미국의 ‘CVID’ 요구가 언급되지 않았으며, 좀 더 모호한 약속을 반복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CVID에서 ‘검증 가능한(Verifiable)’과 ‘불가역적인(irreversible)’이라는 두 가지 원칙이 빠졌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

통령이 ‘세기의 핵 합약’을 도출하기 위해 김 위원장에게 통크게 양보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비핵화) 프로세스를 매우 빠르게 시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비핵화 조치가 조기에 가시화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이 ‘패전국에나 적용할 수 있는 용어’라며 반발해온 ‘CVID’ 표현을 완화해주는 대가로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의 국외 반출, 국제 사찰단의 북한 복귀 등을 이른 시일 안에 관철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의 이행을 끌어내겠다는 계산을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작전상 후퇴’를 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모든 곳(the whole place)을 비핵화할 것”이라며 “그가 이제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김 위원장)는 내 생각에 자신의 나라를 위해 아주 멋진 뭔가를 하기를 정말로 원한다”면서 “우리는 그들의 핵무기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이처럼 공동성명에는 CVID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북한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또 2009년 4월 당시 추방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을 다시 북한에 복귀시켜 우리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을 포함해 북한이 향후 제출할 핵 프로그램 신고 내용을 검증하는 한편 영변 핵시설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북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를 약속했다”면서 “미국과 국제사회가 포함된 많은 인력을 투입해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체제보장’ 추상적... 北, 후속회담 매진할 듯

공동합의문 전문에 ‘체제보장’ 약속
‘비핵화·평화 구축’ 보다 우선 명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서명한 공동합의문에 담긴 미국의 대북(對北) 체제보장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의 차기 행정부까지 유효한 불가역적인(Irreversible) 체제보장 조치를 얻어내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공동합의문에는 전문과 합의문 1항을 통해 미국이 북한의 체제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수준의 다소 추상적인 내용만 담겼다. 추후 양국 간의 실무협상을 통해 대북 체제보장에 대한 내용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북미 정상이 서명한 이번 합의문 전문

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또 합의문 1항은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이처럼 대북 체제보장과 관련해 양국은 다소 포괄적인 내용으로 합의해 북한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진행될 추후 실무협상에 더욱 매진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실제로 두 정상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 고위 당국자 간의 후속 회담을 최대한 이른 시기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합의문에서 북한의 체제보장에 대한 내용이 북한의 비핵화 보다 우선적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상응해 북

한의 체제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 체제보장의 로드맵으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북미수교’가 거론된다. 미국이 한때 적대국이었던 중국이나 베트남 등과 전격적으로 수교한 사례를 고려하면, 유력한 시나리오라는 분석이다. 한편, 두 정상은 합의문을 통해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 수립과 관련한 이슈들을 놓고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진지한 의견 교환을 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북미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중대 걸림돌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약 10년 만에 재가동하고, 6·25 전쟁 발발 이후 68년간 이어온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중대한 일보를 내디디게 됐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비서실장 김여정 ‘맹활약’... “남매는 용감했다”

합의문 펼쳐주는 등 존재감 드러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유일한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보좌 역할을 톡톡히 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날 오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의 공동 합의문 서명식에서 김 위원장 곁에서 서펜 뚜껑을 열어주고 합의문을 펼쳐며 오빠를 도왔다. 앞서 업무 오찬에도 참석해 ‘세기의 핵담판’에 나서는 김정은 위원장에 힘을 더했다. 미국 측에서는 이 역할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담당해 김여정 제1부부장의 위상과 정치적 입지를 짐작하게 했다. 북한의 로열패밀리 일원인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서 누구보다 가감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메신저’로 꼽힌다. 김여정 제1부부장이 국제 외교 무대에 처음 등장한 건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



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북한 김여정 당 제1부장과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공동합의문을 교환하고 있다. /연합뉴스

픽 고위급 대표단으로 남한을 방문했을 때다. 그는 특사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와 공식 남북 초청 의사를 전달하는 등 남북 정상회담을 주선했다. 이후 남북정상회담과 북중정상회담 등 주요 행사에 나타나는 등 올해 들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북한 지도부의 행보에 빠짐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3월 초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 등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단이 방북해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할 때도 김여정 제1부부장이 옆자리에 앉았다. 이어 4월 27일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첫 번째 정상회담, 한 달 뒤 통일각에서 열린 ‘번개 회담’에도 나와 김정은 위원장을 부지런히 보좌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김정은 “나이스 투 미츄”... 트럼프에 첫 인사

“훌륭한 관계 맺을 것” 트럼프 발언에 김정은, 미소띠며 “하하하” 웃기도

“나이스 투 미츄, 미스터 프레지던트(Nice to meet you, Mr. president).” 1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첫 인사말을 영어로 했다. 학창시절을 스위스에서 보낸 김 위원장은 수준급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사는 영어로 했지만 회담장에 들어가선 우리말을 썼다. 일부에선 영어 인사말이 김 위원장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통역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김 위원장은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말로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마주하기까지 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을 표현했다.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도,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또 그릇된 편견과 관행들이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우리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고 전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맞다”(That's true)고 화답했다. 단독정상회담에 앞서 한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분이 정말 좋다. 아주 좋은 대화가 될 것이고, 엄청난 성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말 성공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성공적인 회담을 예견하기도 했다.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김 위원장은 “아주 훌륭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통역의 발언을 듣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하하하”하고 웃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손을 모으고 김 위원장의 발언을 들은 뒤 먼저 악수를 했고, 밝게 웃으며 특유의 ‘엄지 척’ 제스처를 했다. 이에 앞서 예정된 9시(현지시간)보다 약간 늦게 첫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예상과 달리 10초 가량의 짧은 악수를 나눴다. 일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대로 김 위원장과 20~30초 가량 길게 악수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84년생으로 46년생인 트럼프 대통령보다 38살이나 어린 김 위원장은 첫 만남에선 긴장한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주 웃는 등 여유있는 모습이었다. /김승호 기자

완전비핵화·평화체제·관계정상화·유해송환 합의

(6·25 전쟁 전사자)

공동성명 어떤 내용 담았나

“김정은, 비핵화 약속 재확인
트럼프, 北안전보장 제공 공약
새로운 북미관계 건설 노력”

북미 양국이 12일 완전한 비핵화, 평화 체제 보장, 북미 관계 정상화 추진, 6·25 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공동성명에는 1항에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두 국가 국민의 바람에 맞춰 미국과 북한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성명은 2항에서 “두 국가는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이어 3항에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작업을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그동안 요구해온 ‘완전

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표현은 명시되지 않았다.

4항에는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성명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미국-북한 관계 수립과 관련한 이슈들을 놓고 포괄적이고 깊이 있게, 진지한 의견 교환을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체제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동성명에 서명하기 직전 “우리는 중요한 문서에 서명한다. 굉장히 포괄적인 문서”라며 운을 폈다.

김 위원장도 “세상은 아마 중대한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며 “이런 자리 위해 노력해주시는 트럼프 대통령께 사의를 표한다”고 화답했다.

이들이 발언하는 동안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테이블에 놓인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문 서류철을 펴졌다. 동시에 김여

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다가와 오빠인 김 위원장에게 서명용 필기구를 건넸다.

곧바로 서명이 시작됐다. 김 위원장은 금세 서명을 끝냈지만 서명이 다소 복잡한 트럼프 대통령은 좀 더 시간이 걸렸다.

이들은 서로의 합의문을 건네받아 다시 자신의 서명을 넣었다. 2부의 합의문에 각각 서명해 나눠 갖는 것이다. 오후 1시 43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합의문을 돌려주며 악수를 했다. 전세계가 숨죽이며 기다려온 북미 정상회담의 교착상태를 깬 순간이었다.

최종에는 큰 박수가 터졌다. 양 정상이 입장하기 전에 북미의 핵심 수행단이 미리 들어와 서명 테이블 맞은편 의자에 앉아 있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부위원장, 리수용 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등 북미협상의 핵심 주역들이 힘껏 박수를 치며 합의 도출을 축하했다.

/이범중 기자 joker@metroseoul.co.kr

북미정상회담 트럼프-김정은 공동성명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견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한 사안들을 주제로 포괄적이고 심층적이며 진지한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아래와 같은 합의사항을 선언한다.

1.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한다.
2. 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3.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4.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 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이 거대한 중요성을 지닌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북미 간 수십 년의 긴장과 적대행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공동성명에 적시된 사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약속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은 북미관계의 발전,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번영, 안전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업무 오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햄버거 대신 소갈비... 싱가포르 음식 올라

오이선 등 韓 궁중음식 포함 눈길
디저트는 타르트·아이스크림 등

북미 정상이 12일 함께한 업무 오찬 테이블에 햄버거는 없었다. 그 대신 미국과 북한, 싱가포르 현지 음식이 올랐다.

이날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업무 오찬에는 아보카도 샐러드를 곁들인 전통적인 새우각제일, 오이선, 허니 라임 드레싱과 신선한 문어를 올린 그린 망고 케라부가 전식으로 나왔다.

오이선은 오이에 칼집을 넣고 소고기와 달걀, 당근 등을 채운 한국의 궁중음식이고, 케라부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많이 먹는 아채 샐러드의 일종이다.

3가지나 되는 전식 메뉴로 정상회담의 당사국인 북미와 개최국인 싱가포르의 음식을 배합한 것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부각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전체에 이은 주요리의 구성도 비슷했다.

먼저 소갈비조림 요리가 오븐에 구운 감자 도피누아와 데친 브로콜리와 함께 나왔다. 바삭바삭한 돼지고기를 넣고 휴메이드 XO 칠리소스를 곁들인 양저우식 볶음밥과 대구조림도 주요리로 나왔다.

서양식 요리에 싱가포르에서 많이 먹는 중국식 요리, 그리고 한식 메뉴가 조화

된 구성이다. ‘싱가포르에서 이뤄지는 북미간 화해와 교류’라는 정치·외교적 의미가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디저트로는 다크 초콜릿 타르트와 체리 맛이 가미된 하겐다즈 바닐라 아이스크림, 파이의 일종인 트로페지엔이 나왔다.

이번 정상회담의 오찬 테이블에 햄버거가 올라갈지가 여러 관련 포인트 중 하나였지만 햄버거는 등장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6년 6월 유세를 하면서 김 위원장과 햄버거를 먹으며 핵 협상을 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햄버거라는 메뉴 자체가 격식 없이 편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다 미국의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패스트푸드라 더욱 관심이 쏠렸다.

이날 업무 오찬에는 미국 측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 성 김 필리핀주재 미국 대사, 매슈 포틴저 NSC 부보좌관 등 7명이 참석했다.

북한 측에서는 미국보다 1명 많은 8명이 자리했다. 김정은 위원장 주변으로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리용호 외무상, 노광철 인민무력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한광상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전당 재정경리부장)이 앉았다. /김승호 기자

세기의 담판 이끈 ‘北美 조연’은?

김영철·리수용·리용호 vs
폼페이오·존 켈리·존 볼턴
북미 핵심 외교라인 총출동
회담 형식·의전 등 실질적 관리

12일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각각 보좌한 양국의 ‘조연’들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비핵화, 체제보장 등 양국간 첨예한 문제부터 회담 형식, 의전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난제들을 놓고 북한과 미국, 싱가포르 등을 오가며 이날 회담 자리를 만든 실질적인 주역들이다.

확대정상회담에선 미국 측의 경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존 켈리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앉았다.

김 위원장 옆에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리수용 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리용호 외무상이 함께 했다. 특히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은 각각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왼쪽과 오른쪽에 앉아 마주본 채 두 정상을 보좌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두 차례나 방북해 김 위원장을 만나며 담판 성사를 이끈 인물이다. 대북 초강경파에서 ‘친(親)김정은’으로 급변시킨 인물인 그는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몇 주에 걸쳐 일주일에 8~10시간씩 브리핑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지냈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김 위원장의 ‘복심’으로 꼽힌다. 김 부위원장은 서훈 국정원장과 함께 한반도 정세 변화를 물밑에서 주도하며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삼각체널을 구축한 인물이다. 김 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가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자리에도 모두 배석했다.

‘슈퍼 매파’로 불리는 볼턴 보좌관은 ‘선(先) 핵폐기 후 보상’이라는 강경한 ‘비

북미정상회담 확대회담 배석자



사진: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제공

비아 모델’을 밀어붙여 정상회담을 좌초 시키려 했다는 의심까지 받은 인사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싱가포르행에 극적으로 올라탄 데 이어 이날 확대정상회담 대좌에도 참석했다. 미 언론은 폼페이오 장관과의 불화설이 돌던 볼턴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압박카드’로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백악관 2인자인 켈리 비서실장의 배석은 군 장성 출신인 그의 능력을 트럼프 대통령이 높이 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하는 ‘어른들의 축’의 한 멤버로 불려온 그가 충동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자제시키면서 예측불허의 북미정상회담을 큰 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리수용 부위원장은 북한 외교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 그는 다년간 스위스 대사로 활동해 선진국의 외교와 국제 사회의 외교 전략에 밝고, 외교 인맥도 폭 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리용호 외무상은 머릿속에 대미 협상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의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꼽힌다.

리 외무상은 1990년대 초부터 핵 문제 뿐 아니라 군축, 인권, 생화학무기, 미사일 등 대미 외교 현안을 다루는 각종 협상에 핵심 멤버로 참여했으며 6자회담 경험도 풍부하다.

확대회담 뒤에 이어진 업무오찬에선 북한의 경우 김여정 제1부부장, 최선희 외무성 부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한광상 당 중앙위 부장이 추가로 자리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으로 오빠 곁에서 정치·외교 등 국정 전반을 관장하는 ‘오른팔’이자 파트너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올해 초 김 위원장의 특사로 방북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하며 ‘한반도의 봄’을 알리는 전령사 역할을 하기도 했다.

최선희 부장 역시 ‘미국통’으로 꼽힌다. 최 부장은 리용호 외무상과 함께 대미 외교의 ‘한 우물’을 파온 인물로, 핵 문제 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군축,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대미 전략과 협상에 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 앞서 미국의 ‘카운터파트’인 성 김 필리핀 대사와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릴레이 협상’을 벌이며 의제 조율을 맡아왔다. /김승호 기자 bada@



경찰 한 명 당 지켜야 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는 519명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위해
밤낮 없이 발로 뛰는 경찰들 곁에서
우리의 기술이 돕는다면
내일의 안전에는 빈틈이 없을 것입니다

SK텔레콤은 대구지방경찰청과 함께 ICT 기반의
사회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 1위 드론 제조사 DJI와
실시간 영상전송 고도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5G는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쓰여야 하니까요

미래 생활의 중심 | SK telecom



높은 곳에서 한눈에 상황을
파악하는 폴리스 드론



24시간 사각지대 없이 관찰하는
라이브 카메라



통신망 기반의 초고화질 영상
관제시스템 T Live Caster

SEE YOU TOMORROW!

韓증시, 디스카운트 → 프리미엄... 3000시대 성큼

E-로드 열렸다

韓증시 탄력받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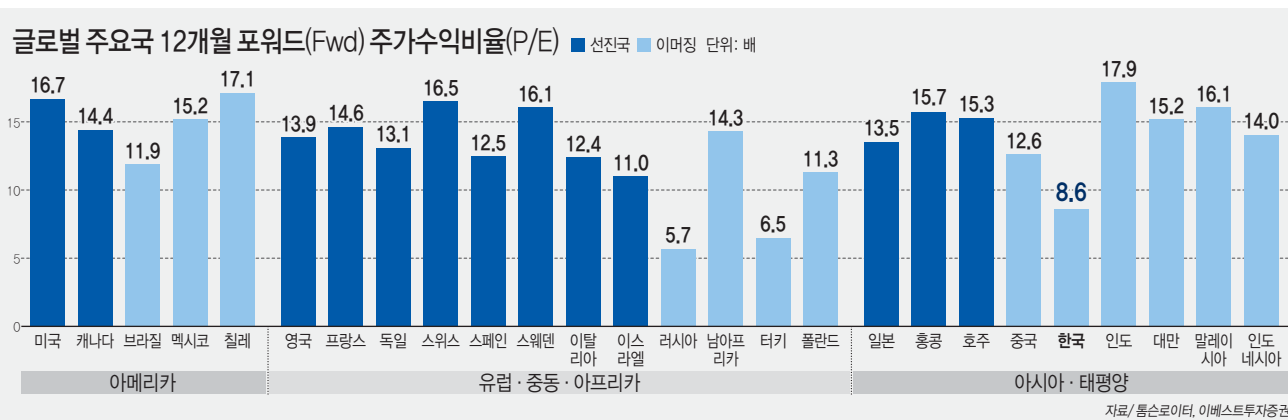
한국증시, 세계서 절반가량 할인
평화 정착엔 코스피 3600도 가능
외면 받던 철도·건설 관련주도
北의 산업화 예상에 '반등' 시작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국내 증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한국 증시를 한단계 끌어올릴 것이라 기대감이다. 일부에선 코스피 지수 3000 돌파 전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특히 철도·건설주 등 인프라 관련주가 주가 상승을 견일할 것이라 분석이다.

12일 코스피지수는 종일 등락을 거듭하며 경계 심리를 나타내다 전일 대비 0.05% 하락한 2468.83에 장을 마감했다. 다만 기관이 코스피시장에서만 1216억원어치 순매수하며 향후 국내 증시 상승 기대감을 전했다.

◆코스피 3600 간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남북 간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한국 증시가 단기간에 최대 15%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같은 전망의 근거는 그동안 국내 증시를 억눌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할인 요인)'가 해소될 것이라 기대감이다. 국내 증권가는 코스피 지수 3000 돌파를 예측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지금껏 국내증시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글로벌 증시 대비 지속적인 저평가를 받아왔다.

12일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12개월 선형 주가수익비율(PE) 기준으로 한국 증시(MSCI Korea Index)는 8.6배로 미국(16.7배), 홍콩(15.7배) 등 글로벌 증시(MSCI AC World Index)에 비해 50% 가까이 할인돼 있다. 하지만 이제 저평가 요인 중 하나가 해소된 만큼 국내 증시 상승은 시간의 문제라는 평가다.

연동찬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련의 이슈들을 종합해 볼 때 한국의 밸류에이션(주가수준) 디스카운트는 점차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는 그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남북 간 평화체제가 확립되고, 배당성향이 지금의 2배로 높아질 경우 코스피지수가 36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안혁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상장사들의 배당성향(순이익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보다 2배 상승한 40%에 도달할 경우 PER은 지금보다 5배수 상승한 16배 수준, 코스피지수로 계산하면 3600포인트에서 거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한화투자증권 역시 코스피 3000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다.

마주옥 한화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은 여러가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남북이 휴전 상태라는 점"이라며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 내년 코스피는 3000포인트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남북경협 1차 수혜는 인프라

그동안 국내 증시에서 외면받아왔던 철도, 건설 등 인프라 관련주의 반등도 시작됐다. 북한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운송망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항만과 도로 보다는 공항과 철도가 먼저 개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앞서 세계적 투자 전문가인 짐 로저스는 북미정상회담이 한국증시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북한 관광객 증가에 따른 호재를 기대, 항공주에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건설주의 강세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남북 경협주로 떠오르며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했지만 현재 주가 수준은 역사적 저평가 구간이라는 설명이다.

김승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이날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대북 경제협력주 재부각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관련해 확산보다 집중을 강조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업종이 건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업종 현재 주가순자산비율(PBR)은 과거 12개월 기준 1.2배, 12개월 선형 기준 1.0배로 기준 0.8배, 0.7배 수준에서 단기간에 상승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2010년 이후 평균치인 1.2배를 소폭 하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이번 북미회담으로 국내 증시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신중론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미미하다"면서 "남북 관계 개선과 더불어 국내 산업구조가 바뀌고, 증시 선진화가 이뤄져야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SOC 등 관련 인프라 확충 기대... 건설업계 '함박웃음'

E-로드 열렸다

건설업계 새 먹거리

'건설업에 북한이란' 보고서

남북 'H경제 벨트' 조성 인식 공유
기반시설·산업단지 조성 등 '유망'
北 개방면 연 7조~9조 투자 가능
수주 기대감에 업계 주가 상승세

북·미 정상회담으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에는 희소식이다. 대북 건설 시장이 열리면 교통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등 인프라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해외수주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건설사들이 새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북한 도로·철도·건축 시장 관심

한화리서치센터 송유림 연구원은 12일 '2018 하반기 전망-건설업에 북한이란' 보고서를 통해 "건설사 실적이 회복세를 나타내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에 따른 수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건설업 주가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경제 활성화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경제 개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남·북한 모두 한반도 개발을 위해 'H 경제 벨트'를 조성해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한다

<남북한 도로 현황 비교>

| 구분 | 남한 | 북한 |
|----------------|----------|-------------|
| 도로 총 연장(km) | 108,780 | 26,176 |
| 고속도로 총연장(km) | 4,438 | 774 |
| 도로 포장률 | 75.80% | 10%미만 |
| 국도 1일 통과 차량(대) | 12,695 | 1,500~3,000 |
| 화물여객 | 화물 64.7% | 7.0% |
| 분담률 | 여객 86.0% | 37.0% |

/자료=통일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화투자증권 리서치, 언론보도



북한의 도로 현황

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함의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 연구원은 "남·북 간 민간 경제협력과 사회협력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경우 교통 SOC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건설수요가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등의 자료를 보면 '건설업계의 대북진출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유망진출 부문별 우선순위는 기반시설 건설(35.4%), 산업단지의 건설(34.4%), 관광개발(2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민간기업의 34%는 기반시설의 완비가 시급한 사안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반시설 중에선 용수·전력, 도로·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이 가장 먼저 구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북한은 1급 도로인 고속도로를 제외

하면 도로 포장률이 10% 미만이며, 전기공급도 어려운 상태다. 자체부족으로 주택의 단순시공이 이뤄지고 난방체계도 잘 갖춰지지 않았다. 주요 수송 수단인 철도도 노후화가 심각하다.

보고서는 향후 북한 시장이 열리면 연간 7조~9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4년 북한 개발을 위한 재원 규모로 총 5000억 달러를 설정하고, 국토연구원 이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를 위해 93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 등을 종합해 추산된 규모다.

◆건설사 새 먹거리는 '北 신규수주'

보고서는 올해 국내 건설수주가 미흡한 상황에서 북한의 신(新)시장이 열리면 신규 수주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올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133조원으로 전망된다. 4년 내 최저치다. 민간 주택 수가 급감하고 이

에 대한 공공 수주의 완충역할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해의 건설 수주는 최근 유가 상승으로 전년보다 회복한 360억 달러가 될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과거 고유가 시대보다는 낮은 수준의 수주 성과다.

송 연구원은 "최근 건설사는 지난 3~4년간 지속된 해외 신규수주 부진과 국내 주택사업의 피크아웃 등으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라며 "여기에 수주가 더해지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기대감으로 건설업계 주가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인다. 과거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는 시기마다 건설주가 주목받아왔다. 1차 남북정상회담(2000년 6월 13~15일) 당시엔 회담이 이뤄지기 전인 5월 22일~6월 12일까지 건설업주가 약 69% 올랐다. 2차 회담(2007년 10월 2~4일)엔 건설업 주가가 코스피를 앞서며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보고서는 남북경협사업 수혜 가능성 등으로 추가 먹거리 확보가 기대되는 회사로 현대건설 등을 꼽았다. 현대건설은 과거 대북 경수로 원전 주설비공사(1517억원), KEDO 원전 기반시설공사(1135억원) 등 총 71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금강산 관광을 진행하는 현대아산의 지분도 7.5% 보유하고 있다. 대우건설도 과거 북한에서 현대건설과 함께 경수로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한양사이버대학교
www.hycu.ac.kr

변함
없는
1등

한양
사이버
대학교

최고 브랜드 대상
국가브랜드대상(7년 연속 수상)

최다 학과, 전공
28개 학부(과)

최대 재학생 규모
학생수 1위, 재적생 16,967명

명문 대학원 진학
대학원 진학 총 2,623명

2018학년도
입학설명회

일시: 1차 6.16(토) 14:00~16:00 | 2차 6.26(화) 19:00~21:00 | 3차 7.25(수) 19:00~21:00
장소: 사이버 2관 3층 (301호, 302호, 303호) /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 2번 출구 방향

한양사이버대학교
2018학년도
신·편입생 모집

06.01(금) ~ 07.06(금)

공학계열

컴퓨터·정보보호공학부(컴퓨터공학과, 해킹보안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부(전기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기계자동차공학부(기계 제어공학전공, 자동차IT융합공학전공),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디자인계열

디자인학부(공간디자인전공, 뉴미디어디자인전공, 디자인기획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인문사회계열

상담심리학부(상담심리학과, 미술치료학과, 청소년상담학과), 아동학과, 교육공학과, 영어학과, 일본어학과,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 시설경영전공, 사회복지서비스전공, 사회복지상담전공), 보건행정학과, 법학과, 경영학부(경영정보학과, 글로벌경영학과, 마케팅학과, 서비스·생산·물류학과, 인사조직·전략벤처학과, 재무·회계·세무학과), 경제금융학과, 광고미디어학과, 호텔관광의식경영학부(관광호텔경영학과, 호텔조리외식경영학과), 실버산업학과

문의 전화 02)2290-0082 · 입학지원센터 go.hycu.ac.kr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패기의 리더



거래의 달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승자는 누구?

12일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 있는 카펠라 호텔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역사적 만남을 가졌다. 세계가 주목하는 회담을 벌이는 북미 두 정상이 벌인 '담판'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낼 것이며, 회담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번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외교 전문가들은 두 정상의 기질과 업무 스타일을 분석하며 여러가지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 김정은은 체제보장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치열한 협상을 펼칠 것이 예상된다. 기업가로 잔뼈가 굵은 '거래의 달인' 트럼프 대통령과 광폭행보를 앞세운 '파격의 리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각자 살아온 인생경력을 걸고 '한판 승부'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 임한 두 승부사는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 본산 미국과 소련 붕괴 이후에도 문을 닫아 잠근 사회주의 국가 북한이라는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하고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것을 즐기며 묵은 정치적 관행을 깨뜨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다.

트럼프는 1946년 뉴욕에서 태어난 독일계 이민 3세대. 뉴욕군사학교 졸업 후에 펜실베이니아 와튼스쿨에 편입해서 경제학 학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부동산 사업에 뛰어들어 크게 성공한 그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NBC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어프렌티스'를 진행하며 대중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 때부터 솔직하고 과격적인 언사와 함께 명분에 구애받지 않고 미국의 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사업가로서 주목받았다. 이후 정치권에 입문한 트럼프는 2017년 1월에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1984년생으로 알려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1년 12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해 20대 후반이란 이른 나이에 북한 최고지도자 자리에 올랐다. 유년시절 스위스에서 유학하며 서구

세계를 경험했기에 농구를 좋아하고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등 개방적 사고방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비핵화 물꼬, 향후 이행방식 관심

김정은 北 체제보장 여부 눈길 남북·북미 관계 급물살 기대감

트럼프는 '거래의 달인'으로 불린다. 그는 저서 '거래의 기술'에서 "사람들은 대개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일을 성사시킨다는 것에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규모를 작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이란 큰 규모의 거래를 해오던 사업가로서 특유의 직감에 의지해 빅딜을 수행하는 승부사적 기질을 잘 보여주는 말이다.

김정은 위원장도 어린 시절부터 강한 승부욕을 보여왔다. 김정일의 개인 요리

사였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는 "구슬 놀이를 하던 김정은이 형 정철의 조언을 따랐다. 구슬을 놓치지 화가 나서 형에게 구슬을 집어 던진 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초에 방북한 남측 특사단에 북미정상회담을 먼저 제안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락하면서 이번 회담이 열리게 됐다.

두 정상은 과격한 면이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트럼프는 한번 분노하면 정적을 비롯해 비판자를 공개 석상에서 심한 말로 모욕했다. 김정은 역시 권력강화를 위해 고모부 장성택을 포함한 많은 북한 인사를 처형하거나 숙청했다. 집권 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쏟던 김정은과 협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트럼프는 서로 "늑다리 미치광이", "꼬마 로켓맨" 같은 거친 말을 주고받기도 했다.

비록 자유세계 기업가출신과 전제주의 국가 리더라는 큰 차이는 있어도 회담장에서 만난 두 정상은 실리를 위해 과감한 태도변화를 주저하지 않는 행보를 해왔다.

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혀 최고조에 오른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단숨에 완화시켰다. 이후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솔직하고 대담한 태도로 국제사회에 호감을 얻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때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선언하다가 금방 재개를 선언하는 등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일단 회담성사에 대해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만큼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어낼 거란 전망이 다수다.

다만 양국간 신뢰문제와 얽혀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도 있는 만큼 합의된 내용이 어느 쪽에 더 유리할지는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은 만일 폭넓은 비핵화 과정을 최대한 먼저 진행한다면 트럼프가 '유리한 거래'를 한 셈이고, 단계별로 비핵화를 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체제보장을 먼저 받는다면 김정은의 '파격적 승부'가 성공한 셈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사진/연합뉴스

주요 경제단체, 일제히 환영 성명

전경련·경총·대한상의 등 "경제협력·공동번영 위해 노력"

주요 경제단체는 12일 성공적으로 끝난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확인하고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북미회담은 평화와 공존의 새 시대를 연 역사적 회담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합의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추진돼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구축되길 바란다"며 "경제계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최선의 역할을 찾아 적극 협력할 것이며, 남북의 새로운 경제협력 시대를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반도 평화실현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이루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헌신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4·27 남북정상회담과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지난 70년 동안 남북간 대립과 반목을 끝내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전경련은 앞으로 이어질 남북회담과 후속조치들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경제계 차원에서 역할을 다 할 것이며,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성명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6·12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계기로 향후 남북경협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매

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만큼 그동안 전면적으로 중단됐던 개성공단의 조기 정상가동을 비롯한 여러 의미 있는 남북 협력 재개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재추진 지원을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코멘트'를 통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국내기업 신인도 향상으로 국내 소비 및 투자심리를 개선하는 물론 우리 경제 성장을 제고할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이라면서 "경총은 책임 있는 경제단체로서 우리 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고,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등 남북 경제협력과 공동 번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다짐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관계자들도 12일 열린 북미 정상회담을 서울 여의도 협회 사무실에서 함께 지켜보면서 박수를 치며 환호하는 등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남북 경협을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될지도 반신반의했는데 심지어 빠른 속도로 다 이뤄졌으니 향후 경협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개성공단 입주 1호 기업인 의류업체 신원 관계자는 "회담을 생중계로 지켜봤는데 성공적으로 끝난 듯해 회사 내부적으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개성공단기업 협회를 통해 재개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뺏은 듯 다른' 북미 정상의 스타일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에 나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과 드레스코드에 대해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됐다.

인민복 vs 붉은 넥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인민복'을 입고 등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짙은 갈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 흰색 와이셔츠를 입은 것과 대조됐다.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로 들어선 김정은은 줄무늬가 없는 검은색 인민복에 왼손에는 검은색 서류철을, 오른손에는 안경을 들었다.

인민복은 사회주의국가 지도자의 '상징'이다. 과거 중국의 지도자들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인민복을 자주 입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입고 나온 인민복은 남북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 때 입었던 옷과는 달리 줄무늬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즐겨 매는 강렬한 색상의 붉은색 넥타이 차림이었다. 상대를 압도하겠다는 전략이 담겨 있어 일각에서는 이 붉은색 넥타이를 '파워 타이'라고 부른다.

실용성 중시 vs 예측 불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실리적인 이득을 얻는데 능하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좋아



한다.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비터 차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놀랄 준비 하라. 두 지도자는 사람들이 놀라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 역시 지난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기존 남북 대화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첫 만남부터 문재인 대통령에게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 땅을 밟을 것을 제안하는가 하면, 도보다리 대화와 판문점 선언을 통해 작은 것에 매이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상반된 성격도 지니고 있다. 싱가포르 디스트레이트타임스는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변덕스러운 리더십을 구사하고 직감을 중요하는 스타일인 반면, 김 위원장은 냉정한 실용주의자이며 교활한 협상가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의 최우선은 '예측 불가능성'이다. 그의 측근들도

속내를 짐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김 위원장은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문 대통령과의 남북정상회담에서 같은 동포로서의 친근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나이 37살·키 20cm 차이

1946년생인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는 올해 만 71세이다. 생일이 6월 14일이기 때문에 곧 72살이 된다.

이에 반해 1984년 1월생으로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의 나이는 만 34세로 트럼프 대통령과는 37살 차이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1977년생으로 만40세이고 1981년생인 장녀 이방카는 만36세로 둘다 김정은 위원장보다 나이가 많다. 두 정상 모두 체구가 크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키가 190cm로 장신인 반면 김 위원장은 170cm로 추정된다. /신원식 기자 tree6834@

文 “박찬 감동에 잠 못이뤄… 남북미 새 시대 간절히 염원”

국무회의 앞서 북미회담 TV시청 “지방선거 공정성 문제 없도록 끝까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기에 앞서 흐뭇한 표정으로 국무위원들과 함께 TV로 북미정상회담을 시청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악수를 나누는 장면에선 눈을 떼지 못하고 열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대해선 “매우 중요한 선거인 만큼 국민께서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평소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진행하던 차담도 이날은 하지 않고 싱가포르에서 펼쳐진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TV로 시청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국무회의전 북미정상회담 시청은 문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는 모습을 방송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차담을 하지 말고 먼저 들어가 시청합시다”라며 국무위원들을 유도하기도 했다.

회의장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빔 프로젝터로 생중계 화면을 송출했다. 이와 별도로 회의실 테이블에도 6대

의 TV를 설치했고, 문 대통령 자리에는 별도의 모니터를 배치했다.

TV 시청에 열중하던 문 대통령은 조한기 의전비서관이 국무회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자 오른손으로 ‘잠깐만’이란 사인을 보내며 조금 더 시청하자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북미정상회담 성사의 박찬 감동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도 어제 잠 못 이루는 밤이었다”면서 “우리에게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남북미 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국민들과 함께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들과 국무위원들 역시 이번 회담에 많은 기대감을 표시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회담에 앞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딸 아이 태어난 날, 분만실 앞에서 서성이던 심정”이라면서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으니 건강하게 큰 소리로 울며 세상에 나와다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임 실장은 국무회의 전 ‘어제 한미정상이 통화했는데 오늘 회담 후 김정은 위원장과 핫라인 통화를 하는가’라는 물음에 “아직 계획이 없다”고 대답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국무회의 전 기자들을 만나 ‘북미정상회담을 어떻게 전망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전망이

보다는 기도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지방선거에 대해선 현 정부 들어서 처음 치러지는 만큼 투·개표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에 있어선 별 문제가 없는 시대가 됐다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표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주요 참모진들과 사전투표를 하며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투표가 내일의 희망을 만들고, 정치 발전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고,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만든다”면서 “투표해야 국민이 대접받는다. 투표해야 정치가 국민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朴 남북 협력 실천 野 북미회담 평가 절하

서울시장 선거 마지막 날

박원순 “빠른시간내 평양 방문·협약”
김문수 “朴, 시민단체의 허수아비”
안철수 “박원순의 7년 실정 끝내야”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문재인정부의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뒷받침할 적임자는 여당 후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권에선 이날 열린 북미정상회담을 평가절하했다.

박원순 후보는 이날 오전 선거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책상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서울-평양 포괄적 교류협력 구상’을 확실하게 실천하겠다”며 “정부의 협력을 얻어 가장 빠른 시간에 평양을 방문해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중앙정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민주당 후보인 자신이 당선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평화와 번영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전쟁과 위기의 한반도로 되돌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시장 후보들이 막판 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자유한국당 김문수, 바른미래당 안철수. /연합뉴스

그는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가 재산세 허위사실로 고발한 데 대해 “제가 은근한 재산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면 제가 100배로 보상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색을 내세우지 않고 당이 공천한 후보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막판 뒤집기 총력전에 나선 야권에서는 같은 날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박 후보 깎아내리기에 주력했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북한과 담판해 한반도의 운명과 미래, 과거가

지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는 빠졌을까 생각해 보면 핵심은 핵”이라며 “지족은 가졌고 우리는 없어서 미국과 김정은이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는 박 후보를 시민단체의 허수아비이자 빔덩이로 비유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같은날 오전 노원구 유세에서 “박원순의 7년 실정 끝내고 3선을 막으려면 3번 안철수를 찍어달라”며 “안철수를 찍으면 안철수가 되고, 김문수를 찍으면 반대로 박원순이 된다. 사표를 만들지 말아달라”며 야권표를 자신에게 몰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병준 기자 joker@

지역일꾼 4016명 선출… 밤 10시30분께 당선자 윤곽

제7회 지방·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부동층 40%의 투표, 결과 좌우
전체투표율 60% 넘을지도 관심
개표소 254곳 결과 실시간 공개**

전국 2280개 선거구에서 4016명의 지역 일꾼을 뽑고, 12개 선거구의 국회의원을 뽑는 제7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날이 밝았다.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 13일간의 선거운동을 진행한 각당과 후보들은 이제 국민들의 선택을 기다리게 됐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 투표 종료 후 개표작업에 들어가면 이르면 밤 10시 30분께 당선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일부 접전지의 경우 14일 새벽에 가서야 당선자가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유권자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과 교육감 17명, 기초단체장 226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의원(제주) 5명 등의 지역일꾼을 뽑는다.

이번 선거는 지난 8~9일 치러진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이 전국 단위 선거로는 두 번째로 높은 20.14%를 기록해 전체 투표율이 60%를 넘을지가 관심사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5년 제1회(68.4%) 선거 이후 줄곧 50% 안팎의 저조한 성적을 이어왔다.

정치권에선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일부 지역에서 많게는 40% 이상까지 잠깐 부동층의 투표 여부와 표심이 투표율과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막아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과 함께 경찰의 호송 아래 254곳의 개표소로 옮긴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선거정보’ 애플리케이션(앱)에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교육 소통령, 진보 후보가 ‘절대강세’

교육감 선거 D-day

文 정부 1년 교육정책 평가 선거
현직 후보 12명중 11명 진보성향
여론조사 결과 현직 후보 모두 1위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을 뽑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 1년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와 맞물려 있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교육 정책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어느 선거보다 의미가 남다르다.

또 현직 교육감 출신 후보 12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가 정당 공천없는 ‘깜깜이 선거’라는 비난 속에 치뤄지면서 이들이 얼마나 당선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현직 교육감 12명 중 11명이 진보 성향 후보인 만큼 17곳 중 13곳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됐던 2014년 선거 결과가 재연될지도 관심사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당 공천 없이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인 탓에 인지도에서 우위에 있는 현직 교육감들의 재선이 우세하다는 분석이 많다.

김재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감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어 현직이 우세할 수밖에 없고, 현직이 없는 지역에서는 학부모 등 교육에 관한 이해당사자들 위주로 진보·보수 프레임이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방송 3사가 지난 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2명의 현직 교육감들이 1위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조희연, 37.7%)과 경기(이재정, 35.6%)에서 현직들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직이 없는 인천에서는 도성훈(15.9%) 후보가 앞선 가운데, 고승의(10%), 최순자(9.5%) 후보가 접전을 벌인다.

충청권에서는 대전(설동호, 27%), 충북(김병우, 31.2%), 세종(최교진, 30.2%), 충남(김지철, 20.8%)에서 현직이 앞서고 있다. 다만 투표할 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지지후보 없음·모름)’이 50~62%로 많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 역시 부동층(52.1%)이 과반수를 넘는 가운데 현직 민병희(31.2%) 후보가 앞서고 있다.

호남권에서는 현직이 없는 전남을 제외한 전북(김승환 29.9%), 광주(장휘국, 28.5%) 현직 후보가 앞서고 있다. 전남에서는 고석규(24.1%), 장석용(15.9%), 오인성(11.1%) 후보가 경합을 벌인다.

경상권의 경우는 부산(김석준, 37.7%)과 경남(박종훈, 35.9%)에서 현직이 크게 앞서고 있다. 반면, 현직이 없는 대구, 경북, 울산에서는 각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보수 텃밭에서 첫 진보 성향 후보가 나올지 주목된다. /한용수 기자 hys@



“6·13 지방선거 꼭 참여하세요”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청계천 모전교 인근에서 항공직업전문학교 재학생, 아름다운 지방선거 홍보대사 등이 ‘6·13 아름다운 지방선거 투표참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그들은 왜 자랑스러운가?



신세철의
쉬운 경제

우리 사회에는 자랑스럽기는커녕 수치스럽지만 한 지도층 유력인사들이 수두룩한 반면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자랑스러운 한국인들도 여기저기 많이 있다. 아직까지는 여기 쓰여 있는 이들을 직접 만나는 행운이 없었지만, 언젠가는 만나서 한 번이라도 손을 잡아 보는 기회를 가지고 싶다.

기증자 손창근 선생

아무 조건 없이 서울 남산 면적의 2배나 되는 땅을 국가에 기증한 이가 있다. 경기도 용인 미리내 성지 옆 시공간 일대 임야를 숲으로 보전하기 위한 용기다. 기증자는 오랫동안 스스로 가꾸은 "숲을 개발하지는 끈질긴 압력과 유혹을 뿌리치기 위하여 나라에 기증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라고 한다. 산림청은 그 숲의 이름을 기증자 선친의 호를 따 '석포숲'으로 부르기로 했다.

그 바로 얼마 전, 도심지역에 있는 남아있는 자투리땅마다 고층건물 건축 허가를 내준다는 한심한 뉴스가 무엇인가 답답하게 할 때였다. 숨막히게 늘어선 빌딩 숲에 조그만 삼지공원이라도 조성하여 사람들이 숨 쉴 작은 완충지대라도 만들어야 하는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 환경을 오염시키는 인사들을 생각할수록 석포숲 기증자의 용기는 더 빛난다.

누구도 천당이나 극락으로 가져갈 수 없기에 그 땅은 우리들의 자손 대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이 파헤쳐 지고 찢겨 투기의 대상이 되는 대신에 신선한 산소를 뿜어내며 사람들을 포근하게 감싸는 휴식공간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것은 기증자 손창근 선생의 우람한 뜻이 있기 때문이다.

"바둑의 품격" 바둑 기사 조한승

2009년 바둑 기사 조한승이 제대 직후 국수전 우승컵을 거머쥐자, 상금 전액을 그가 근무하던 최전방 수색부대와 유니세프에 희사하였다. 세계를 제패하는 바둑 기사들 거의 대부분이 10대나 20대 초반임을 생각할 때, 프로 기사로서 두뇌활동이 가장 왕성할 시기에 군에 입대한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는 군에 입대하면서 "군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것 같다. 2%의 부족한 투자를 채워주겠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제대 직후 영광스러운 국수 타이틀을 획득함으로써 군 복무가 보다 강인하고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셈이었다.

마침 그때는 "비상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6명 중에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는 의장을 비롯하여 모두가 병역 미필자 내지 기피자다. "라는 전직 고위관료의 신문칼럼을 읽고 씩씩할 때였다. 직접 군대 생활을 하지 않고도 장군이 되거나 전투 경험 없이도 사령관이 될 수 있는 독재국가, 왕조국가도 아닌 자유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괴한 현상이었다. 그 글에는 우리나라에서 의무를 다하고, 깨끗하게 살면 출세하기 어렵다는 자괴감이 깊이 배어있었다. 그 글에는 상류층(?)에게 병역기피는 하나의 장식이고 탈법과 변칙, 탈세, 논문표절 같은 일들로 얼룩져있음을 개탄하고 있었다.

조한승의 바둑은 잔수보다는 바둑판 전체를 그리고 바둑의 기본 이치를 존중하기에 동료 기사들은 그에게 "바둑의 품격"이라는 칭호를 보낸다고 한다. 그는 2008년에도 중국리그 우승, 준우승 상금 모두를 중국 쓰촨성 지진 피해자들에게 전하고, 2012년에는 중국리그 특별 보너스 전액을 리그가 속한 지역 가난한 주민에게 기부하기도 하였다. 그가 품격 있는

바둑을 두는 까닭은 아마도 넘치는 인간애와 함께 실천적 행동에서 비롯되지 않았을까? 그 후에 그 어려운 국수 타이틀을 3연속 제패하였다는 기사가 반가웠다. 아마도 마음을 크게 하니 세상 이치와 같다는 바둑의 수도 잘 보였을 것이라고 짐작된다. 2018년에도 바둑 최고수들이 겨루는 입신최강전에서 우승하였다는 기쁜 소식이 있다.

오상봉 선생과 양학선

'도마의 신' 이 하늘로 솟구쳐 허공에서 몇 바퀴 돌다가 흐트러짐 없이 착지하자 메달 색깔을 닦는 외국 선수들까지 감탄하며 손뼉을 치는 런던올림픽 장면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누구도 시도해본 적이 없는 고난도 제조기술을 선보여, 국제제조협회에 '양학선기술'로 등록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그날이 있기까지는 그의 자질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도마 선수로 이끈 중학교 은사 오상봉 선생의 변함없는 애정과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한다.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우뚝 선 것은 스승의 사랑과 제자의 존경심이 어우러졌기에 가능했을 것으로 짐작한다.

오늘날 학원에는 스승은 어디로 가고 제자도 없는 그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장소로 변해가고 있음을 가끔 느끼게 된다. 교사가 학생을 한낱 고객으로 여기기도 하고, 학부모 심지어 학생이 교사를 구타하는 상상하기도 싫은 사태가 벌어지는 시대상황에서 스승과 제자의 아름다운 인연이 자랑스럽다. 양학선 선수가 더 겸손한 자세로 힘찬 날개를 다시 펼치기를 기대한다.

세상에는 이들 외에도 자랑스럽고 본받을 인물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다. 지저분한 자들의 그 부끄러운 행각 보도에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하여도 자랑스러운 이들의 숨어 있는 일화가 끊임없이 발굴되고 사람들에게 자꾸만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현대차, 영국 첼시 축구클럽 후원

현대자동차가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소속의 명문 축구클럽 '첼시 FC'와 글로벌 자동차 파트너 후원계약을 체결했다. 12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번 계약을 통해 오는 8월 시작하는 2018/2019 시즌부터 2021/2022 시즌까지 4년간 선수단 유니폼 소매, 경기장 내 광고판 등에 현대차 로고를 적용하게 된다. 첼시 FC 소속 선수인 다비드 루이스, 올리비에 지루, 티에무에 바카요코(왼쪽부터)가 현대차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차



효성그룹, 육군1군단에 위문금·위문품 전달

효성그룹은 육군1군단 광개토태도를 방문해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효성이 1군단에 전달한 지원 액수는 총 4000만원 상당이다. 위문금 1000만원·위문품 400만원·어치·독서카페 지원금 2600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안영호 육군1군단장(왼쪽 세번째)과 효성 최현태 전무(왼쪽 네번째)가 자리에 참석했다. /효성그룹



우리은행, CJ오쇼핑과 협력기업 상생지원 MOU

우리은행은 지난 11일 서울 중구 본점에서 '우리은행-CJ오쇼핑, 협력기업 상생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체결됐다. 이동연 우리은행 부행장(오른쪽)이 허민회 CJ오쇼핑 대표이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투표 전에 꼭! 공약 확인해야



기지수첩
최신웅
(정치사회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날이 밝았다. 5월 31일부터 13일 간 전국에서 9300여 명의 후보자들이 밤낮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국민들을 직접 만났다.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들 간 진행된 사전투표는 투표율 20.4%를 기록하며 기대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물론, 아직도 투표에 소극적인 이들이 주변에 많지만 유명 연예인을 비롯해 많은 국민들이 투표 인증 사진을 SNS에 올리는 것을 하나의 놀이로 생각할 만큼 이제 투표는 국민들의 당연한 주권 행위로 자리잡은 것 같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투표를 많이 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투표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번 선거도 어김없이 선거 막판에 '여배우 스캔들', '이부망천' 발언 등이 선거 판세를 흔들 큰 변수로 작용하면서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책보다는 막말과 자질시비로 초점이 옮겨졌다. 문제는 여야 정당들이 이런 이슈를 활용해 국민들 사이에 갈등을 조장하고 정책과 공약에 따라 지역 일꾼을 선택하려는 국민들의 신중한 결정을 방해했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는 사·도지사 선출부터 지방의원 선출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선거다. 투입되는 예산도 1조원이 넘는다. 그만큼 우리들의 한 표가 얼마

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2280개 선거구에서 4016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이며, 12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된다.

그동안 선관위는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납세 등 정보와 정책·공약이 담겨 있는 선거공보를 가정에 보냈다. 혹시라도 이 공보를 보지 못했다면 선관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우리동네 공약지도', 유권자 희망공약, 정당의 10대 공약, 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도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투표 하러 가기 전에 꼭 우리 지역 일꾼이 약속한 내용을 확인해본 후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면 좋을 것이다.

/grandtrust@metroseoul.co.kr

대한항공, 신입 객실승무원 200명 모집

대한항공은 글로벌 항공사의 일원으로 서기내 안전과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신입 객실승무원 2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서 접수는 12~22일 오후 6시까지 대한항공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지원 자격은 기 졸업자 또는 2019년 2월 이전 졸업예정자에 한한다. 교정시

력 1.0 이상이며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공인 어학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전형 절차는 서류 심사 후 1차 면접, 2차 면접 및 영어구술 테스트, 체력/수영 테스트 및 3차 면접, 건강검진 순이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6월 28일(목) 채용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경연우 기자 yw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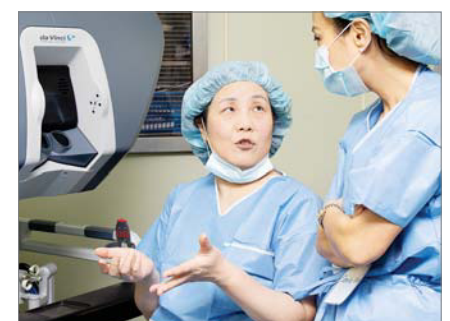
이대목동병원 싱글사이트 로봇수술 메카로

로봇수술센터 문혜성 산부인과 교수 국내외 전문의들에 노하우 전수

싱글사이트 로봇수술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이대목동병원으로 국내외 산부인과 로봇수술 전문의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싱글사이트 로봇수술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서다.

이대목동병원은 국내외 산부인과 로봇수술 전문의들이 로봇수술센터 문혜성 산부인과 교수의 싱글사이트 로봇수술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병원을 찾는다고 12일 밝혔다.

문 교수는 지난 1월 다빈치 로봇을 개발하고 수술을 보급하기 위한 일환으로 인튜이티브 컴퍼니에서 전 세계적으로 제한적으로 지정하고 있는 에피센터 멘토 자격을 부여 받았다. 이대목동병원은 에피센터(Epicenter)를 개설해 문 교수를 에피센터장으로 지정했다.



문혜성 에피센터장(왼쪽)이 미국 의료진에게 수술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다. /이화의료원

센터 개설 후 문 교수는 로봇수술 기기를 배우기 원하는 임상의를 대상으로 수술 참관과 임상 강의를 통해 수술 기법의 노하우를 전달하고 있다.

이대목동병원 문 센터장은 최근까지 620여건이 넘는 로봇수술을 집도했다. 이중 절반 이상인 360여 건이 배꼽만 뚫어 수술하는 싱글사이트 로봇수술로 성공적으로 시행했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

metr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21-1551

| | |
|----------|-----------------------------------|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 편집국장 | |
| 인쇄인 | 중앙일보(주) 김교준 |
| 광고문의 | 02-721-9851, 9826 |
| 독자센터 | 02-721-9861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2002년 5월 28일 제 3975호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2017년 3월 09일 제 0069호 |

인사

- ◆중소기업중앙회 ◇부서장 전보 △ 사회공헌부장 겸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사무국장 김기훈
- ◆CBS ◇승진 △ 기획조정실장 박종률 △ 경영본부장 이경범 △ 미디어본부 노설위원실장 문영기 △ 미디어본부 디지털기술국장 정용선 △ 선교TV본부 TV 제작국장 강인석 △ 마케팅본부 공연기획센터장 이덕우 △ 전북방송본부장 이열범 △ 강원방송본부장 하근찬 △ 경남방송본부장 김종욱 △ 포항방송본부장 조중의

- ◆호서대 △ 교목실장 유은걸 △ 기획처장 정성희 △ 재무처장 조대진

부음

- ▲강광인(롯데물산 전 대표이사) 씨 별세, 규책·구진·규용 씨 부친상 =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4일 오전 7시 30분, 장지 강원도 춘천시 가평공원묘원, 02-3410-3151.
- ▲정서현(부산일보 전 편집국장) 씨 별세, 인표·인재·지민씨 부친상 = 11일 오전, 부산 사하구 괴정병원장례식장 특실, 발인 14일 오전, 051-293-4382.

소파 리폼 외길 30년 리폼 장인의 손길을 만나보세요

낡은 소파 · 의자를 처음 모습으로 되돌려드립니다

소파·의자 / 리폼·천갈이



- 가정용 소파, 의자 천갈이(천, 레자, 가죽)
- 기업체 관공서 의자류 리모델링
- 국내외 명품소파 전문수리
- 국내외 명품 패브릭, 가죽 다양하게 보유
- 쿠션관계 등 모든 수리, 부분천갈이
- 가죽소파, 의자 염색재생
- HOTEL, RESORT, 병원 Maintenance(보수 유지 관리)

www.seoulsofa.co.kr

서울쇼파
seoulsofa

본사·공장 : 경기도 시흥시 군자동 491

전화 한통으로 서울쇼파 장인의 손길을 만나보세요
(전국 어느곳이나 가능합니다)

콜센터
(무료전화)

080-717-7744

- 서울강남지사: 080-717-7744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강서, 양천, 동작, 영등포, 여의도, 관악, 금천, 구로)
- 서울강북지사: 02-822-7798 (종로, 중구, 용산, 성북, 서대문, 은평, 마포, 동대문, 성동, 중랑, 광진, 노원, 강북)
- 경기북부지사: 010-3335-1765 (일산, 덕양, 파주, 교하,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포천, 양평, 가평, 홍천, 춘천)
- 경인지사: 032-875-4875 (인천, 연수, 송도, 청라, 서구, 영종, 부평, 계양, 부천시전역)
- 경기 남서부: 010-7744-6658 (김포, 강화, 광명, 시흥, 안산, 안양, 평촌)
- 경기 남동부: 080-769-7288 (용인, 수지, 수원, 성남, 분당, 광주, 광교, 동탄, 화성, 오산, 군포, 의왕, 과천, 하남, 이천, 평택, 천안)

지방선거 월드컵 대목만난 이통·케이블... 더 빠르고 더 즐겁게

이통사 “통신 두절 걱정 NO”
선거일 SNS 트래픽 25% 증가 전망
SKT 특별상황실 운영·이동기지국 배치
KT 시청 등 거리응원 장소 기지국 증설

지방선거와 월드컵을 맞아 문자 메시지와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 트래픽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동통신사가 기지국 용량을 늘리는 등 특별소통관리에 돌입한다.

SK텔레콤은 지방선거와 월드컵을 맞아 ▲기지국 용량 증설 ▲특별소통 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오는 13일 치뤄질 제 7회 지방선거를 대비해 전국 주요 투표소, 개표소 및 선관위 정당 당사 등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기지국 용량 증설 작업을 완료했다. SK텔레콤에 따르면 13일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 메시지와 각종 SNS 트래픽이 평소보다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지방선거 당일 특별소통 상황실을 운영하고 약 700명의 비상근무 인력을 투입한다. 특별소통 상황실은 통화량 증가·정전 등 돌발 사태에 대비해 통화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 계획이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월드컵을 맞아 14일부터 오는 7월 15일까지 특별 상황실을 운영하고 약 750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서울시 마포구 홍대 인근에서 SK텔레콤 직원들이 기지국 용량 증설 작업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특히 SK텔레콤은 이를 대비해 서울시청 광장·영동대로 등 길거리 응원 및 트래픽 급증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지국 용량 증설에 나서는 한편, 이동기지국도 배치할 예정이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통신 주관사인 KT는 투표용지·선거인명부 발행 및 개표현황 집계 등을 위한 통신회선을 개통해 품질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트래픽 증가에 대비한 비상상황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월드컵 기간에는 거리응원에 대비해 광화문·시청·신촌 등 대표적 거리응원 장소에 트래픽 급증을 대비한 기지국을 증설한다. 아울러 품질 확보 및 비상상황 대비를 위한 특별 상황실 운영하고, 대한민국 예선전 경기가 열리는 3일 동안 1370여 명의 비상근무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케이블업계 “지역성 강화 총력”
CJ헬로 유권자와 ‘우리동네 선거방송’
티브로드 다원중계... ‘청년기자단’ 운영
현대 HCN 울릉도 첫 군수 후보자 토론회

각 지역 케이블TV가 6·13지방선거 방송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지역성’을 강화하고 있다. 선거기획단 운영부터 생방송 토론회까지 시민참여형 ‘풀뿌리 선거방송’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총 2044개의 선거구에서 3550명의 기초·광역단체장, 지역구 기초·광역의원, 교육감 등을 선출하는 7개 선거가 열리는 6·13지방선거에 케이블TV가 지역 맞춤형 선거방송으로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담는다.

CJ헬로 지역채널 25번은 ‘우리동네 선거방송’이라는 콘셉트로 지역 후보자, 유권자와 함께하는 선거방송을 준비했다.

선거 당일에는 12시간 특별 생방송인 ‘지역이 미래다 특별 개표방송’으로 시청자를 찾는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되는 생방송에서는 재래시장, 노인정 등을 찾아 투표 현장 분위기를 전하고 다문화 가정, 농가 대표, 장애인 연합회 등 지역 내 다양한 유권자들과 만난다. 오후 5시부터 시작되는 개표 방송을 통해서 지역별 광역 기초 의원 개표 현황을 중계해 지역 밀착형 개표 방송을 구현할 계획이다.

티브로드는 그간의 개표방송 포맷을 탈피하고 유권자와 마주하는 오픈스튜디오형 다원중계방



CJ헬로 지역채널 25 ‘우리동네 선거방송’ 포스터. /CJ헬로

식으로 생중계 개표방송을 할 예정이다. 그간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후보자 토론회를 열었다. 달라 이브는 특별 선거방송 시작과 함께 200여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청년기자단’을 운영한다.

청년기자단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특색 있는 선거현장을 포착해 업로드를 하고, 대학생의 시각에서 선거이슈를 점검하고 인터뷰를 통한 리포트를 제작한다. 또 투표참여 독려와 투표 시 유의사항, 공정선거 등을 주제로 캠페인 제작에 참여해 젊은 유권자의 목소리를 담는다.

현대HCN은 ‘공정선거 보도 실천 선포식’을 진행하고, 사전 홍보를 강화해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 지역현안에 대해 후보자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울릉군수 후보자 토론회를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울릉도 현지에서 열기도 했다.

케이블TV에서 방송되는 후보자 토론회 등 지방선거 관련된 콘텐츠는 각 지역별 케이블TV 홈페이지에서 다시보기를 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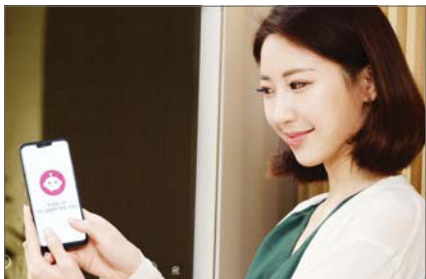
AI ‘챗봇’이 AS상담부터 예약까지 ‘척척’ 현대차, 모터스포츠 명가로 ‘우뚝’

LG전자 챗봇 애프터서비스 제공

LG전자가 챗봇 서비스를 12일 본격 개시했다. 챗봇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이 결합된 단어로 고객들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차별화된 애프터서비스(A/S)를 제공한다.

LG전자가 고객서비스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먼저 시작했다. 챗봇은 스마트폰이나 PC에서 고객과 문자로 대화하며 제품의 이상 원인을 파악해 방문예약, 소모품 구매 등 알맞은 해결방법을 제시해준다.

고객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365일 24시간 어디서나 제품의 고장 원인과 해결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상담원 연결이 불가능한 휴일이나 늦은 저녁시간에도 간편하게 상담이 가능하고, 월요일 오전이나 연휴 다음날 등은 고객들의 문의 접



수가 많아 상담원과 통화 연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된다. LG전자는 챗봇 서비스에 자체 인공지능 플랫폼인 ‘딥싱큐(DeepThinQ)’를 적용했다. 딥싱큐는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작동해 스스로 학습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상담 서비스가 더욱 정교하고 빨라지게 된다.

LG전자 챗봇 서비스의 사용방법은 스마트폰 혹은 PC로 LG전자 고객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화면 하단에 있는 ‘채팅상담’ 버튼을 누르면 된다. /서수원 기자 yun2514@

올해만 랠리·서킷서 8회 우승
고성능사업 경쟁력 강화 ‘결실’

현대자동차가 고성능 모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인재 영입 노력의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는 올 들어서 자동차 랠리대회인 ‘2018 WTCR’에서 총 8번 우승하며 모터스포츠 명가로 우뚝섰다. 모터스포츠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높은 기술 경쟁력을 현장에서 입증하는 대회라는 점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다.

11일 현대차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이탈리아 샤르테나에서 열린 ‘2018 WRC’ 7차 대회에서 현대 월드랠리팀 소속 티에리 누빌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현대차는 올 들어서 WRC에서만 3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그간 현대차는 WRC 출전 이래 통산



‘2018 WRC 이탈리아 랠리’에서 우승을 차지한 티에리 누빌(오른쪽)과 니콜라스 질솔이 우승을 차지한 뒤 환호하고 있다.

10번째 우승을 달성했으며, 이번 우승을 바탕으로 제조사 종합순위에서도 2위인 포드 월드랠리팀과의 격차를 28점까지 벌렸다. 누빌도 이번 우승으로 드라이버 종합 순위에서 총점 149점을 기록하며 2위 세바스티안 오지에 선수를 27점 차이

로 앞섰다. 현대차는 이와 함께 글로벌 최정상급 투어링카 대회인 ‘2018 WTCR’에서도 첫 판매용 경주차 ‘i30 N TCR’로 총 5번 우승을 달성했다.

/양성운 기자 ysw@

KT, 러시아·캐나다도 ‘로밍ON’ 지원

KT는 해외에서 음성통화 요금을 국내와 똑같이 1초당 1.98원을 적용하는 ‘로밍온(ON)’을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12일부터 러시아, 캐나다에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KT 로밍온은 5개국에서 제공된다.

이전까지 러시아, 캐나다에서 음성통화할 경우 1분에 러시아는 최대 5003원, 캐나다는 최대 2277원의 요금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로밍온 서비스 적용에 따라 러시아, 캐나다에서 음성통화할 경우 1분에 119원, 10분에 1188원만 부담하면 된다. 로밍온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모



든 KT 가입자에게 자동 적용된다. KT는 지난 5월 30일 첫 선을 보인 로밍온이 적용된 미국, 중국, 일본에서는 음성통화량이 일 최대 2배, 음성 이용자도 일 최대 50%까지 증가했다. /김나인 기자

현대로템 佛 방산전시회 참가... 유럽시장 공략

현대로템이 프랑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무기 전시회에 참가해 전자와 차륜형장갑차 홍보에 나선다. 현대로템은 11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유로사토리 지상무기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12일 밝혔다.

유로사토리 전시회는 프랑스 지상장비 협회 산하 전시위원회에서 2년마다 개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상무기 전시회다. 올해는 전세계 60개국에서 1700여개

방산업체가 참가한다.

현대로템이 유로사토리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2전차, 차륜형장갑차 등 방산부문 주력 제품군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영업활동과 함께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등 주요 방산시장에서의 신규사업 소요를 발굴한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 K2전차, 8x8 차륜형장갑차, 장애물개척전차 등 주요 제품들의 모형을 전시하며 유럽 및 중



프랑스 유로사토리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 현대로템 전시관 전경. /현대로템

동지역 방산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제품 경쟁력을 홍보하고 방산부문 사업 확대를 도모한다. /정연우 기자 yw964@

이주열 “물가압력 낮아…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한은 총재)

한은 창립 68주년 기념식

기준금리 인상 속도조절 시사
일부 신흥국 금융·외환시장 불안
해외 리스크 주의깊게 살펴야
속도감 있는 구조개혁 강조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속도조절을 시사했다. 당장 올 7월과 8월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한은 창립 68주년 기념식에서 “국내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아직 크지 않다”며 이



이주열 한은 총재가 12일 열린 한은 창립68주년 기념식에서 기립사를 하고 있다.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성장과 물가의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금

용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수요 측면의 물가 압력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1.4%에 그쳤다. 통화정책 목표치인 2.0%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올 들어서 근원물가 증가율은 내내 1.2~1.4%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증가율 역시 올 들어 1.1~1.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총재는 또 최근 우리 경제에 고용 및 소비의 선순환을 제약하는 각종 구조적 문제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부진은 일부 업종의 업황개선 지연 이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도 기인하고 있다”며 “자본 및 기술집약적 산업 등 특정 부문에 크게 의존하는 성장을 외부충격에 대한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소득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는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를 통해 소비를 제약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이에 따라 우리 경제가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 간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미룬다면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주체 간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최근 기초경제 여건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의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해외 리스크 요인들이 함께 현재화될 경우 과급 효과의 향방을 정확히 가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metroseoul.co.kr

윤석현 “은행 대출금리 산정 불합리”

(금감원장)

정보제공·금리공시 등 강화 당부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은행의 대출금리는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금리산정 과정에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를 개선해 금융소비자가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임원회의에서 은행에 대한 금리산정체계 점검결과와 관련해서 같이 말했다.

금감원의 점검 과정에서 은행의 가산금리나 목표이익률 산정이 체계적·합리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이 확인됐다. 가산금리 인하요인이 생겼지만 수년간 고정값을 적용하거나 산출 근거 없이 불합리하게 가산금리를 부과한 경우가 있었다. 또 일부 은행에서는 부당하게 은행 내규상 최고금리를 부과하거나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을 과소 입력



윤석현 금융감독원장

해 가산금리를 과다 부과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금리 상승기에 취약 가계나 영세기업의 신용위험이 과도하게 평가돼 불공정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비자가 은행의 금리산출 내역을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및 금리공시 등을 강화하고,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은행과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통해 모범규준을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상미기자

작년 금융사 내부감사로 893건 자율조치

7개 권역 221개사 자체점검
조치건수 전년비 6.6% 줄어

금융회사들이 지난해 내부감사협의를 통해 총 893건의 자율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지난해 7개 권역, 221개 금융회사가 59개 점검과제에 대해 자체점검을 하고, 총 893건 자율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6.6% 감소했다.

내부감사협의제는 취약한 부분을 점검과제로 선정해 금융사가 내부적으로 감사하고, 금감원이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4년 내부감사협의제를 도입했다.

조치건수 기준으로 제도운영 개선이 424건(47.5%)으로 가장 많았고 ▲불합리

〈연도별 금융회사 자율조치 실적〉

단위:건, %

| 연도 | 개선 | 시정 | 임직원 조치 | 주의 | 합계 |
|-------|-----------|-----------|-----------|---------|-------|
| 2015년 | 452(37.9) | 286(24.0) | 399(33.5) | 55(4.6) | 1,192 |
| 2016년 | 488(51.0) | 195(20.4) | 208(21.8) | 65(6.8) | 956 |
| 2017년 | 424(47.5) | 314(35.2) | 136(15.2) | 19(2.1) | 893 |

()은 구성비

한 부분의 시정 314건(35.2%) ▲임직원에 대한 조치 136건(15.2%) ▲주의 19건(2.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감사협의제로 전 업권에서 자율시정 시스템이 정착되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이 강화됐다”며 “경미하고 반복적인 위규 사항은 금융회사 자체 시정을 유도하고, 금감원은 중대한 취약 부분 위주로 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는 전년도 반복지적사항

과 업권별 특성 등을 고려해 총 61개 주제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미성년자 재형저축 가입, 명령휴가제도 운영 실태 등 22개 과제로 가장 많고, 보험은 불안전 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차매 보험 운영 실태, 보험금 지급지연 관리 등 19개 과제가 선정됐다.

금감원은 내년에는 할부금융 등 비카드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내부감사협의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i@

亞 5개국 펀드 교차판매 본격화

금융위 ‘亞 펀드 패스포트’ 추진

아시아 국가 간에 펀드를 자유롭게 출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본격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어느 한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16년 4월 한국, 뉴질랜드, 일본, 태국, 호주 등 아시아 5개국 간 펀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국내 공모펀드의 패스포트 펀드 등록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 패스포트 펀드의 국내 시장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해당 요건은 운용사의 경우 운용자산 5억달러 이상, 업력 5년 이상 등이며 투자대상 자산은 증권, 예금, 단기금융상품, 파생상품 등이어야 한다. 펀드 자산의

20% 이상을 계열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다.

개정안은 다른 회원국에서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의 경우 일반 외국펀드보다 국내 등록을 쉽게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일반 외국펀드 등록요건 중 운용사의 최소 운용자산(1조원 이상), 자기자본(국내 운용사와 동일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설정펀드 등의 요건을 면제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6월 중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도 즉시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원국 간 등록정보 공유, 국가 간 펀드 판매를 위한 시스템 개편 등 제도시행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국내 제도시행 전 패스포트 펀드 시험등록 등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을 시행해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

중소형 아파트 강세… 매매값 38% 켑췌

(전용 60㎡ 이하, 5년 전 비)

1년간 전체 거래량의 80.62% 차지
실수요자 중심 재편에 선호도 높아

올해도 소형 아파트의 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분양시장이 실수요 위주로 재편되면서 소형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증가한 영향이다. 매매거래가 활발한 만큼 소형 평면의 집값 상승률도 높아 청약경쟁률이 치열하다.

◆올해도 소형이 강세…선호도 高高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수도권에서 거래된 아파트 전용 85㎡ 미만 소형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9만 7776가구로 전체 거래량(36만 9346가구)의 80.62%를 차지했다.

일례로 서울 강동구에서 지난해 3월 입주한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의 경우 매매거래량 총 344건 중 전용 85㎡ 미만 소형 평면이 310건 거래된 반면, 중대형 평면인 전용 97~141㎡는 거래량이 14건에 그쳤다.

매매거래가 활발한 만큼 소형 평면



신한종합건설이 6월 분양하는 ‘김포 센트럴 헤센’ 투시도.

/포에디원

의 집값 상승률도 높다. 부동산 114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수도권 아파트 전용 60㎡ 이하 매매가는 3.3㎡당 평균 1413만원, 전용 60~85㎡이하는 1446만원으로 5년 전(2014년 5월)보다 각각 37.59%, 31.81% 올랐다. 반면 전용 85㎡ 초과인 경우 1631만원으로 같은 기간 24.60% 상승에 그쳤다.

같은 단지 내에서도 소형 평면이 대형 평면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황금산(15년 12월 입주)’ 전용 84㎡ 매매가 시세는 지난 1년간 4억 4000만원에서 4억 9500만원으로 12.5% 증가했으나, 전용 122㎡는 5억 2500만원에서 5억 4500만원

으로 3.81% 올랐다.

업계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수요자들이 가격 부담이 비교적 적고 환금성이 높은 소형 아파트에 몰렸다고 보고 있다.

청약시장에서도 소형 평면의 인기가 높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7년 5월~2018년 5월)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청약자 수는 총 95만 2551명이다. 이중 소형 평면에는 72만 7077명이 몰려 76.33%를 차지한 반면, 중대형 평면에는 22만 5474명으로 23.67%에 그쳤다. 10명 가운데 7명이 소형 평면에 몰린 것이다.

/채신화 기자 csh9101@

‘세기의 담판’에 식품·외식업계도 정상회담 마케팅

오비맥주
화합·협력 메시지 담은 영상 제작
파파존스
6월 기념하는 할인 프로모션 진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세기의 만남을 가졌다. 이에 식품·외식업계도 관련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또한 이번 두 정상의 만남으로 남북 경제협력력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업계에서는 대북사업 준비에도 나서고 있다.

오비맥주 미국과 북한 두 정상의 만남을 계기로 화합과 협력의 메시지를 담은 ‘프레시 스타트’ 영상을 제작,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카스는 수많은 역경을 딛고 마침내 성사된 북미정상회담처럼 불편한 관계도 대화를 통해 새로운 관계로 다시 거듭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실생활의 에피소드들로 연출했다. 무수히 많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춘들에게 화합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불편하고 어색한 관계의 청춘 남녀들이 화해해 나가는 과정을 스



오비맥주 ‘프레시 스타트’ 영상

/오비맥주

토리텔링 형식으로 영상에 담았다.

‘프레시 스타트’ 영상에는 헤어진 연인, 유투버와 악성 누리꾼, 절교한 친구, 전(前) 동업자 등 모두 네 커플의 사연과 대화가 등장한다. 이들은 모두 과거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받아 절연하거나 적대적인 관계에 놓인 상황이다. 카스는 루프탑 바(Bar)에서 아름다운 야경과 함께 이들이 그 동안 쌓인 오해와 감정을 풀 수 있는 소통의 매개체로 등장한다. 카스와 함께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각 커플들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이전보

다 더욱 돈독한 사이로 새로운 만남이 어갈 것을 암시한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브랜드 차원에서 평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이번 광고의 취지”라며 “불편하고 어색한 청춘 남녀들이 카스와 함께 극적으로 서로 화해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도 일상 속에서 반목과 질서를 벗어나 서로 화합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파파존스도 6월을 기념하는 할인 프로



파파존스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6월을 함께합니다’ 이벤트를 진행한다.

/파파존스

모션을 진행한다. 파파존스는 역사의 순간을 함께하는 의미로 14일까지 파파존스 피자 라지 사이즈 이상 전 메뉴에 30% 할인을 제공한다. 파파존스 온라인 채널(홈페이지, 모바일 웹, 앱)을 통해 주문할 경우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파파존스 관계자는 “북미 정상회담, 지방선거 등 국내외 큰 이슈로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6월을 기념하고자 이번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며 “글로벌 브랜드 파파존스 피자와 함께 다시 없을 역사적인 순간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북미 두 정상의 만남으로 남북 경제협력력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유통업계와 식품업계는 대북 사업 준

비에 나섰다.

롯데그룹은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일 롯데는 그룹 내 북방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북방지역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북방지역은 북한, 러시아 연해주, 중국 동북 3성 등을 말한다.

TF장은 오성엽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부사장)이 맡는다. TF에는 롯데지주 공유가치창출(CSV)팀·전략기획팀 임원, 식품·호텔·유통·화학비즈니스유닛(BU) 임원, 롯데 미래전략연구소장도 참여한다. 이에 따라 TF는 총 8명으로 구성됐다. 롯데는 식품·관광 계열사를 앞세워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문화·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리온은 과거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중간판매상을 통해 초코파이를 판매한 바 있다. 당시 초코파이는 북한 암시장에서 거래될 정도였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되면 대북사업을 준비하거나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대북사업 경험이 없는 오펜기는 남북 경제협력력이 본격화되면 대북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뜻을 전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co.kr

시원한 의류 한곳에... 롯데백화점 ‘웰컴 투 아이스랜드’

냉감 소재 ‘쿨링’ 상품 할인 행사

롯데백화점은 13~28일 냉감 소재로 만들어 더운 날씨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쿨링’(cooling) 상품을 판매하는 ‘웰컴 투 아이스랜드’ 행사를 연다.

행사에서는 노스페이스, 라푸마, 컬럼비아, 몽벨 등 인기 브랜드 제품을 10~20% 할인 판매한다.

K2는 쿨 티셔츠를 7만 원 이상 사면 1만 원 할인해주고, 네과, 디스커버리, 블랙야크 등은 10만 원대, 20만 원대, 30만 원대 등 구매 금액대 별로 10~20% 할인해준다.

또한, 냉감 기능 및 향균 기능 등 여름에 입기 좋은 티셔츠 상품들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기능성 냉감 소재를 사용해 피부 접촉 시 지속적으로 냉감을 느낄 수 있는 ‘아이더 아이스티’를 10만원에, 기능성 소재를 사용해 피부



롯데백화점 매장에서 아이스 의류를 고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접촉 시 시원함을 생성하고 향균 처리를 도와 땀냄새를 잡아주는 블랙야크의 ‘야크 아이스티’를 6만9000원에 판매한다.

한편 더운 날씨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면서 시원한 소재의 기능성 의류

를 찾는 사람이 늘었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이달 들어 노스페이스, 아이더, 블랙야크 등 기능성 소재를 전면으로 내세운 브랜드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20% 가량 증가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마트서 생리컵 판매 ‘불편했던 직구는 그만’

대형마트 최초 생리컵 판매 개시

유해성 논란을 빚은 일회용 생리대의 대안으로 떠오른 생리컵을 대형마트에서도 살 수 있게 됐다.

롯데마트는 대형마트 최초로 일회용 생리대의 대체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생리컵을 판매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일회용 생리대의 유해성 논란이 커지면서 온라인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에서 생리컵, 면 생리대 등이 대체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기간 해외직구로만 구할 수 있어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와 관련된 불편을 겪거나 가격적인 측면에서 불만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위드컵

/롯데마트

이에 롯데마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최초로 허가(의약외품)받은 국내 1호 ‘위드컵’ 2종을 소비자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오는 13일부터 잠실역, 서울역점 등 전 점포와 온라인몰인 롯데마트몰

을 통해 선보인다.

‘위드컵’은 의료용 실리콘으로 제조되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해외 직구 상품 대비 저렴하며, 배송기간에 대한 부담이 없다.

또한 최대 2년간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일회용 생리대에 비해 가성비 측면에서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철 롯데마트 홈퍼스널케어팀장은 “일회용 생리대의 대체품인 생리컵을 해외직구 상품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인다”며 “가까운 롯데마트나 롯데마트몰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고객들의 해외 배송비와 배송기간에 대한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여름 제철 과일로 몸보신하세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유통 양재점에서 직원들이 ‘여름 제철 보양식 과일 대전’의 과일을 선보이고 있다. 농협유통은 양재점에서 참외, K토마토, 바나나, 친환경 블루베리, 감귤, 체리 등을 최대 34% 할인 판매 한다. /연립뉴스

/연립뉴스

라면이 티셔츠 속으로... 장벽 깬 이색 콜라보

LF ‘TNGT’·삼양식품 협업 제품 출시

라이프스타일 전문기업 LF의 남성복 브랜드 TNGT가 삼양식품과 협업한 이색 패션 제품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업종간 장벽을 깨고 새로운 가치와 신선한 재미를 선사하고자 진행된 이번 협업에서 TNGT는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삼양식품의 특징을 감각적인 스타일로 제품에 풀어냈다.

TNGT는 삼양라면, 나가사끼 짬뽕, 불닭볶음면 등 삼양식품의 대표아이템의 로고를 워트하는 그래픽으로 활용하



는 것은 물론, 상징적인 색상 조합으로 총 10가지의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선보인다. /김민서 기자 min0812@

/김민서 기자 min0812@

구찌, 신세계百貨 본점에 남성전용 매장 오픈

구찌(Gucci)가 서울 명동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남성 스토어를 오픈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매장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남성들을 위한 쇼핑 공간으로, 의류, 여행가방, 신발, 가죽 소품 등 다양한 제품이 갖춰져 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알레산드로 미켈레가 제안하는 감각적이고 현대적인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구찌 신세계 본점 남성 매장은 절제미가 돋보이는 내부 장식을 통해 고객들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한다. 가죽 소재의 의자와 원형 식탁 등을 배치해 부드러우면서도 감각적인 공간을 연출했다.

또 ‘컨템포러리 럭셔리(contemporary luxury)’라는 브랜드의 비전을 아름답고 독특한 자재뿐만 아니라 여백의미를 통해 재현했다. /김민서 기자

/김민서 기자



[산업]
지방선거·월드컵
대목 만난 이통·케이블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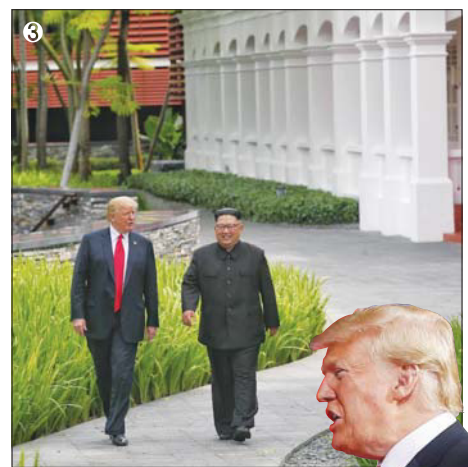
[금융]
이주열 한은 총재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Life 13



‘세기의 회담’ 어색한 첫 만남부터 역사적 합의 서명까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북한 리용호 외무상, 김영철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김주성 통역관,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미국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 이연향 통역국장,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①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 ② 회담장인 카펠라 호텔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단독회담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 ③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업무오찬을 한 뒤 산책하고 있다.
- ④ 12일 서울 용산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뉴스를 TV로 시청하고 있다.
- 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역을 맡은 김주성 통역관(왼쪽)이 단독회담장으로 향하는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역을 하고 있다.
- ⑥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업무 오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싱가포르 통신정보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오른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만나 악수를 위해 서로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SAMSUNG

한낮의 더위도 한 줌의 바람도 없이
무풍으로 온전히 몰입할 수 있었기에

무풍으로 더 깊어지는 우리의 시간
삼성 무풍에어컨

무풍 지능냉방
실내 환경을 감지하고 사용자 패턴을 학습해 24시간 똑똑하게 맞춤 냉방 제공

미국 냉공조학회(ASHRAE) 기준 Cold Draft가 없는 0.15 m/s 이하의 바람을 무풍(Still Air)으로 정의합니다. 본체 음성인식은 최대 5m이며 소비자 가이드 적정 동작기준 정면 3m 이내입니다. 빅스비 음성인식 지원은 와이파이 지원 환경에서 가능하며 실사용 환경에 따라 성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해당 모델에 한함

무풍 지능청정
외부 및 실내 공기 상태를 센싱하여 4계절 내내 알아서 깨끗한 공기 유지

무풍 음성인식
음성 인식으로 복잡한 기능 설정도 간편하게, 상황별 맞춤 제어까지